

최소주의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기능 범주 습득

양 현 권*

1. 머리 말

외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체계에 대한 Hawkins(2001)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일정한 발달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이하에서는 ‘한국인’이라 약칭함)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 이른바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ies)에 속하는 표현을 어휘 범주(lexical categories)에 속하는 표현보다 훨씬 어렵게 그리고 늦은 시기에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시제, 인칭, 일치 등의 굴절소(inflections)는 학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절소의 범주적 투사(categorial projections) 또한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주된 주제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기능 범주 학습에 두어, 굴절 자질 학습과 관련된 학습 양상을 최소주의 언어 이론 체계에 바탕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굴절소 학습 양상을 한혜령(2000)과 신정선(2000)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언어학 이론 체계로서의 최소주의 통사 이론을 운용 체계에 초점을 두어 개관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 자질 학습 양상이 최소주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을 논의한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굴절 자질 학습 양상

근년에 들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 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 한혜령(2000)과 신정선(2000) 등을 들 수 있다. 한혜령(2000)은 한국인 아동 영어 학습자의 영어 문장 구조 습득에 대한 종단적 연구이며, 신정선(2000)은 한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문장 구조 습득에 대한 횡단적 연구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어의 굴절 자질이 구현된 표현을 발화할 수 있게 된다. 다음 (1)과 (2)는 한혜령(2000: 130-131)에서 인용한 것이며,

- (1) He likes hamburger.
- (2) She gets up seven o'clock.

다음 (3)과 (4)는 신정선(2000: 59)에서 인용한 것이다.

- (3) He likes English.
- (4) His mother called Danny.

위 발화 예에는 굴절소가 구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굴절소가 동사와 결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1)에서 3인칭 단수 현재형 굴절소 -s가 동사 like에 결합되어 있다. 원리와 변인 문법 체계에서는 굴절소의 이러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5) [IP he -s [VP like hamburger]]
- (6) [IP he t [VP like-s hamburger]]

원리와 변인 문법 체계에 따르면, (1)에서의 굴절소는, (5)에 제시된 것처럼, 원래 굴절소 투사(IP)의 핵(head)으로 생성되었다가, 통사적 이동 과정을 통하여 동사구(VP)의 핵으로 이동한다. (6)은 이러한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조인데, 이동의 결과 굴절소 투사의 핵의 위치에는 이동의 흔적(trace)이 남아 있는 한편 굴절소는 동사 'like'와 결합되어 있다.

한혜령(2000)과 신정선(2000)에 따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1)-(4)에 예시된 바와 같은—굴절소가 동사핵과 결합한—표현을 발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다

음과 같은 표현을 발화한다. 다음 (7)과 (8)은 한혜령(2000: 112)에서 인용한 것이며,

(7) He is eat egg.

(8) He is like cookie.

다음 (9)와 (10)은 신정선(2000:80)에서 인용한 것이다.

(9) She is like strawberry.

(10) He is live Lucky Apartment.

이 발화 예들은 앞서 (1)-(4)에 제시된 발화 예들과는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예에는 이른바 'be' 동사에 해당하는 표현이 굴절 자질과 관련된 문법 요소로서의 인칭과 시제 등의 정보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7)-(10)에 예시된 문장을 '주어-be 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주어-be 구문'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양현권(2001) 및 Yang(2005) 등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예 (7)은 다음 구조를 지닌다.

(11) [IP he is [VP eat egg]]

(11)에서 'is'는 (미발달) 굴절소 투사의 핵에 해당하며, 이 굴절소 핵은 인칭 및 수 등의 일치와 관련된 굴절 자질을 지닌다.

이상에서 개관한 굴절 자질 학습 양상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흥미로운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왜 학습자들은 굴절 자질과 관련된 구조를 특정한 발달 단계를 거쳐 학습하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의 굴절 자질과 관련된 구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목표 구조(target structure)로서의 (1)-(4)와 같은 표현을 발화하지 못하고 중간언어 구조로서의 (7)-(10)과 같은 표현을 발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의문의 해결의 실마리를 최소주의 이론의 통사 운용 체계에서 찾고자 한다.

3. 최소주의 이론에서의 통사적 운용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기본 원리로 소위 경제성(economy)에 근거한 개념적 필연성(conceptual necessity)을 전제한다. 개념적 필연성이란 문법 체계의 운용에 있어 '언

어'라는 개념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떤 요소 또는 작용도 되도록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 체계의 경제성이란 언어 표현의 생성(derivation)을 위한 문법의 운용이 '경제적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다 경제적인 문법 운용이 비경제적 운용에 비하여 선호됨을 의미한다.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연산 운용 기제로서 병합(Merge)과 이동(Move)을 상정한다. 다음 (12)는 병합 운용의 정의에 해당한다.*

(12) Merge is an operation that takes a pair of syntactic objects and replaces them by a new combined syntactic object.

병합은 두 단위의 통사 구조물(syntactic object)을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창출하는 운용이다. 이 병합 운용을 "Help me!"를 예로 들어 예시하면 다음 (13)과 같다.

(13) "Help me!"의 생성
 {help}와 {me}의 병합 → [help [me]]

(13)에서는 'help'라는 표현과 'me'라는 표현이 병합되어 있는데, 병합체로서의 'help me'에서는, 구구조(phrase structure) 형성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help'가 핵을 형성한다.

병합 운용은 개념적 필연성 차원에서 요구되는 운용이다. 만약 병합 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복합 표현—둘 이상의 단위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장을 발화한다는 것은 복수의 기본 언어 단위를 구구조에 맞게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병합이라는 운용이 개념적 필연성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동 운용에 대해 살펴보자. 변형 생성 문법이 태동된 이후 생성 문법 체계의 집중적 초점을 받아 온 언어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변형(transformation) 또는 이동(movement)과 관련된 것이다.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 따르면, 이동 운용은 개념적 필연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변형 또는 이동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언어 연산체계의 접합점 해석—언어 표현으로서의 문장이 지니는 소리와 의미의 해석—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동은 개념적 필연성에 입각한 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언어 체

* 최소주의 문법 체계에는 병합 및 이동 이외에도 부가(Adjoin)라는 연산 운용이 있다. 부가는 이 논문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계에서는, 기본 연산 운용으로서의 병합과는 달리, 선호되지 않는 비경제적인 운용이다. 이는 이동이 병합에 비하여 비용이 보다 많이 드는 운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의 결과로 산출된 구조는—병합 운용만으로 산출된 구조와 비교할 때—비경제적임을 의미한다.

4. 최소주의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굴절소 습득

이제 제3장에 살펴본 최소주의의 통사 운용 체제에 기반을 두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굴절소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어-be 구문’이 발화되는 단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는 병합 운용이 주된 통사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단위 표현을 어휘부에서 선택한 다음 이를 목표어의 구구조에 따라 병합한다.

다음은 ‘주어-be 구문’에 속하는 발화 예의 생성을 예시한 것이다.

(14) He is eat egg의 생성

가. [eat]와 [egg]의 병합

[eat [egg]]

나. [is]와[eat [egg]]의 병합

[is [eat [egg]]]

다. [he]와 [is [eat [egg]]]의 병합

[he [is [eat [egg]]]]

(14)에는 ‘he is eat egg’를 구성하는 단위 표현들이 병합되는 과정이 예시되어 있는데, 각 통사 구조물들은 구구조 형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합되어 있다.

이제 다음으로 굴절 자질이 목표 구조로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통사 운용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굴절 자질이 동사에 병합되어 나타나는데, 이 단계는 병합 운용과 더불어 이동 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굴절 자질이 동사에 결합된 예의 생성을 예시한 것이다.

(15) He likes hamburger의 생성

가. [like]와 [hamburger]의 병합

[like [hamburger]]

나. [-s]와 [like [hamburger]]의 병합

[-s [like [hamburger]]]

다. [he]와 [-s [like [hamburger]]]의 병합

[he [-s [like [hamburger]]]]

라. [-s]의 동사핵으로의 이동

[he [t [like-s [hamburger]]]]

(15)의 (가)-(다)에서는 병합 운용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라)에서는 이동 운용이 적용되고 있다. (15)에서는 (14)에 비하여 이동이라는 운용이 추가되어 있는 데, 이동 운용은, 최소주의 이론 체계에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제, 이 논문의 핵심 주제로 돌아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굴절 자질 습득에 있어서 목표 구조를 습득하기에 앞서 ‘주어-be 구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자. 그 까닭은, 최소주의 이론 체계에 따르면, 목표 구조로서의 영어의 굴절 자질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통사 운용이 ‘주어-be 구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사 운용에 비하여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최소주의 원리 체계에 규정된 원리에 따라” 영어의 굴절 자질과 연관된 구조를 습득하는데, 그 결과로 목표 굴절 구조를 습득하기에 앞서 ‘주어-be 구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기능 범주 학습을 굴절 자질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 문장의 기능 범주에는 굴절 자질 이외에도 의문 자질과 관련된 범주가 있다.

한혜령(2000)과 신정선(2000)에 따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의문문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 이들 연구의 의문문 학습 발달 단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발화 예가 관찰된다. 다음 (16)과 (17)은 한혜령(2000: 135-136)에서 인용한 것이며,

(16) Is she study?

(17) Is he likes hot dog?

다음 (18)과 (19)는 신정선(2000:105)에서 인용한 것이다.

(18) Is he is a student?

(19) Is this story is true?

이들 발화는 학습자가 영어의 의문문의 구조를 완전하게 학습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관찰되는 예들이다. 이 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be' 동사가 의문문의 표시자(marker)로서 문장의 처음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사 구조로 나타내는 방법은 의문문 표시자로서의 'be'를 평서문 구조의 앞에 병합하는 것이다. 다음 (20)은 (19)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며, (21)은 생성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20) [is [this story is true]]

(21) Is this story is true?의 생성

가. [is [true]]

나. [[this story] [is [true]]]

다. [is [[this story] [is [true]]]]

(20)과 (21다)에서는 'is'가 [this story is true]라는 통사 구조물에 병합되어 있다. 이를 목표 표현(target structure)으로서의 (22)가 지니는 통사 구조와 비교하여 보자.

(22) Is this story true?

(22)는 중간 언어 표현 (19)에 상응하는 목표 표현으로서, 이 예는 다음과 (23)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23) [is [this story t true]]

다음 (24)는 (22)의 생성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24) Is this story true?의 생성

가. [is [true]]

나. [[this story] [is [true]]]

다. [is [[this story] [t [true]]]]

(23)과 (24다)에서는, 'is'가 원래의 위치에 흔적을 남기고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였다. 즉, (20)에서와는 달리, (23)에서는 이동 운용이 적용되어 있다.

최소주의 이론 체계에 따르면, 이동 운용이 적용된 (23)의 생성은 그렇지 않은 (20)의 생성에 비하여 비경제적이다. 외국어 문장 구조 습득의 논의에 최소주의 이론의 체계를 가정하면, 학습자의 기능 범주 발달 과정에 있어서 (23)은 (20)에 비하여 나중에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혜령(2000)과 신정선(2000)에 관찰된 바에 따르면, 과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목표 표현 (23)을, 중간 언어 표현 (20)에 비하여, 훨씬 나중에 발화한다.

5. 마무리

이 논문은 이상의 논의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기능 범주 습득 양상을 굴절 자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굴절 자질과 관련된 목표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 특정한 중간 언어 구조를 생성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발달 양상은 최소주의 이론의 ‘개념적 필연성’과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됨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사적 운용으로서의 이동 운용이 병합이라는 운용에 비하여 비경제적이라는 최소주의의 기본 가정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논의의 확장 가능성일 것이다.

이 확장 과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방향의 경험적 논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Zobl과 Liceras(1994: 175)의 영어 굴절 자질 습득과 관련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 따르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그들의 모국어는 무엇이든,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굴절 자질 구현체로서의 ‘-s’를 중간 언어 표현으로서의 ‘be’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발화한다. 이는 곧 이들의 굴절 자질 습득 양상 또한,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소주의의 이론 체계 내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양현권 (2001).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be'의 범주적 특성. *영어학* 1권 1호. 59-79.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Dulay, H. and M. Burt. (1973). Should we teach children syntax? *Language Learning* 23, 245-57.
- Greenbaum, S. (1987). Reference grammar and pedagogical grammar. *World Englishes* 6, 191-197.
- Hahn, H.-r.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wkins, R. (2001). *Second Language Syntax*. Blackwell.
- Pienemann, M. (1998). *Language Processing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ienemann, M. and M. Johnston. (1987).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roficiency. In D. Nunan ed., *Apply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Adelaide, Australia: National Curriculum Resource Centre.
- Rutherford, W. (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Longman.
- Seliger, H. W. (1979).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language rules in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13, 359-369.
- Shin, J.-s. (2000). Functional Category Acquisition by Korean EFL Learners: The Role of U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h.D.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Yang, H.-K. (2005) Be or Not: That is the question about the acquisition of inflectional categories by East Asian EFL learners. presented at SLS colloquium,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Zobl, H. and Liceras, J. (1994). Review Article: functional categories and acquisition orders. *Language Learning* 44, 159-180.

<Abstract>

A Minimalist Interpretation of the Acquisition of Functional Projections by Korean EFL Learners

Yang, Hyun-Kwon*

This is a syntactic inquiry into the acquisition of English functional projections by Korean EFL learners. The investigation, embedded within the Minimalist Program of Chomsky, reveals that the two fundamentals of the MP, 'the conceptual necessity' and 'the economy principle', play the determining role in steering the developmental path.

*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SNU